

>> 1면 '흔들리는 검찰권위...'서 계속

### '검경 갈등구도' 피하러 권익보호 뒷전 우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덧글 수사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인근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검사가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직도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 '어른 눈치'에 무너진 불구속수사원칙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전문성을 떠나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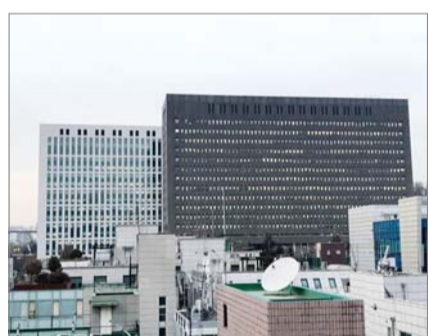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영장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과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소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를 내세워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영장으로 준비한 영장을 그나마 검찰이 정리해줬지만, 요즘은 검찰이 그 꼴이라, 법원이 정리해주고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의 신병처리 주도권이 이제는 법원에 넘어갔다"며 혀를 찼다.

/이범중 기자 joker@



과거 엄정한 잣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이 최근 여론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과의 갈등 구도 역시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과 고검 전경. /이범중 기자

>> 1면 '짐 로저스 초청 강연...'서 계속

### "日 제외, 北·러·韓 북한의 개방 원한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개방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위스에서 생활해서 완전한 북한인이라기보다 외국인 성향이 있는 듯 하다"며 "김정은의 아버지(김일성 전 위원장)가 김 위원장을 왜 후계자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부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을 빼고 북한, 러시아, 한국 모두 북한의 개방을 원하고 있다. 3만 명의 주한 미군이 불확실성 요소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의)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 청와대 게시판 달구는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

# "직원 1만명 死地로... 4천억 주식 휴지될라"

(가속)

#### 국토부 '항공법 위반' 처분 연기 청문절차 거쳐 최종 결정기로

#### 靑 게시판에 면허 취소 반대글도 "직원은 갑질의 최고피해자일 뿐"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뒤로 미뤄진 가운데 취소 시 발생하는 임직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2~3개월 뒤로 연기됐다. 진에어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진에어의 이런 불법을 방지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인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진에어 항공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서 재직했다.

진에어는 일단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일 진에어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직원의 실직 및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약 1만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다른 항공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관리직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익명의 게시자는 "진에어 직원들은 10년 넘게 회사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한 직원들"이라며 "지금까지 조씨 일가 갑질의 최고 피해자이며 오직 묵묵히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진 직원들의 회사"라고 토로했다.

면허취소의 영향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2만5000명의 일반주주에게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원자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취소 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두고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세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 가장 큰 우려되는 것은 고용과 항공서비스 관련 문제들"이라며 "면허 취소 여부가 청문회 결정에 달린 만큼 청문 절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코스닥, 6개월 만에 800선 붕괴... 美中 무역전쟁 우려

#### 코스피는 2270대로 하락 14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 투자심리 회복 어려울 듯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증시를 뒤흔쳤다.

코스피지수는 2일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확대되며 급락해 1년여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울 들어 처음으로 800선이 붕괴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59포인트(2.35%) 하락한 2271.54로 거래를 마쳤다. 작년 5월 10일(2270.12) 이후 최저 수준이다. 2300선이 무너진 건 14개월 만이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35억원, 1155억원 순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4005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관련기사 8면>

코스닥지수도 800선을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3.47% 급락한 789.32에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지수가 800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바닥으로 여겨졌던 8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에 주식시장이 파황게 질렸다. 2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2.35% 내린 2271.54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3.47% 급락한 789.82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한 투자심리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 급락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더욱이 선물지수까지 빠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주 주말에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지

수는 800선을 바닥으로 봤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와 중국 증시 하락에 더 크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우려에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상해지수는 지난 달 29일 장 중 2782.38포인트까지 낮아지며 연 중 최저점을 형성했고, 현재시간에도 전일 대비 2% 이상 하락한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홍 팀장은 "지금은 투자자들이 팔

았다가 사지는 심리"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한 증시 약세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 목적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 후퇴이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고 당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공정 규제를 완화시키려 한다.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은 "대중 압박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핵심 목적은 단순한 무역적자 규모 축소가 아닌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후퇴"라면서 "미국의 공격대상이 단순히 중국의 경제 손실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전략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착수

주민의견 수렴 충실히 수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해 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역 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타당성 재조사 부문 용역에서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이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면 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주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전 타당성 연구에 참여한 업체와 인력은 배제했다. 또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분야 연구기관은 타당성 재조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공항행정책관은 "향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지역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KB국민銀, 10년 만에 印尼 재진출

부코핀 은행 신주인수계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소매금융 전문은행인 부코핀 은행(Bank Bukopin)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현지 금융당국(OJK)으로부터 신주인수 적격기관으로 승인받았다.

부코핀 은행은 이번달 12일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 대상으로 교부 후 2주간 권리행사기간을 거치게 되며, KB국민은행은 이번달 26일 최종 지분을 확정시 최대 22%의 지분 취득 여부가 결정돼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기준 14위의 중형은행(BUKU 3)으로 전국적으로 총 322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고객 및 중소기업(SME)고객 위주의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과의 신주인수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KB국민은행은 2008년 인도네시아 BII은행(현 메이뱅크 인도네시아) 지분 매각 이후 10년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진출하게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